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Children's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이 옥 경**
Lee, Ok Kyung
이 순 형***
Yi, Soon Hyung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by age and sex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rosocial moral reasoning and prosocial behavior by costs and types of tasks. The subjects were 300 3th- and 6th-graders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revised form of Prosocial Moral Dilemmas including costs and types of tasks was used. The tasks of prosocial behaviors included time-cost tasks, money-cost tasks and physical strength-cost tasks. For data analysis, the paired t-test, two-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s were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ge difference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6th-graders performed at a higher level than 3th-graders. Sex differences weren't significant. In low- and high-cost tasks and in time-, money-, and physical strength-cost tasks, there were (2) Scores on high-cost behavior tasks were higher than on low-cost tasks. (3) Children's prosocial moral reason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prosocial behavior; in low- and high-cost tasks, and in time-, money-, and physical strength-cost tasks.

I. 문제 제기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여러가지 일탈 행동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왔고, 친사회적 행동을

* 본 논문은 첫번째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조교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유발하는 아동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려는 많은 학문적 노력이 이루어졌다.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고려되는데 여기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담과 보상,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정서적, 인지적 관계, 더 넓은 사회적 관계 등이 포함된다(Eisenberg, 1982). 친사회적 행동이란 수행자에게 부담, 자아희생, 모험을 동반하게 하는데,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판단과 수행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인 부담의 정도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해 온 부담-보상(costs-rewards) 관점은 친사회적 행동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부담과 보상의 계산 하에서, 인간 상호작용에서 가장 이로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담을 최소로 하고 보상을 최대로 하려는 원리에 의하여 유도된다고 본다. 친사회적 행동의 종류에 따라 부담의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행동이라도 부담의 높고 낮음에 따라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행동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가에 따라서도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담 조건을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은 모든 선행연구들은 주로 물건 등을 나눠주거나 실험자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주기, 그리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대한 반응, 실험자의 일을 도와주기 등 유사한 종류의 한 두 가지 행동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해 왔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이 동일한 행동 과제 내에서 부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종류가 다른 여러 과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친사회적 행동에서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함과 동시에 조사 대상 연령에 적합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과제들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인 인지과정을 거치므로 일정수준의 도덕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Mussen & Eisenberg, 1977)는 인지발달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온 개인내적 요인이 친사회적 도덕추론이다.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Eisenberg-Berg & Hand, 1979; Eisenberg, Lennon, Beller, & Mathy, 1987)은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나 보고된 관계의 양상은 일관성이 없다. 이러한 결과는 추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행동의 종류나 부담이 달라짐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들(정현희, 1990; Eisenberg et al., 1987)을 볼 때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하여 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경우는 상황의 부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Eisenberg-Berg & Neal, 1981)가 있으므로 추론과 행동 모두에 부담을 고려할 두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론과 행동 모두에 상황적 조건인 과제의 부담을 고려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행동의 성차 문제에 있어서도 단일한 행동만으로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성차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 과제에 흥미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제 변수를 고려하여 과제의 종류와 부담이 다른 상황에서 성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개인내적 변인인 아동의 연령, 성별과 상황적 변인인 과제의 부담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고,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과제의 부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 관련 연구 고찰

1. 친사회적 도덕 추론

인지발달론의 입장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다양한 동기를 구별하고 평가하는 하나의 주요한 접근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도덕추론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Eisenberg-Berg(1979b)는 규칙, 권위자의 명령, 형식적인 의무가 최소로 관계되는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 추론을 연구하였다. 그는 친사회적 도덕 갈등 상황에 대한 아동들의 추론을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들은 1수준인 '욕구충족적, 실용주의적 지향', 2수준인 '타인의 필요지향', 3수준인 '승인과 인간관계지향 또는 상투적 지향', 4수준인 '공감적 지향' 및 과도기 단계, 5수준인 전단계의 사고가 '강하게 내면화된 단계'로 다시 나누어진다. 각 수준들은 이전의 수준보다 성숙한 추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라 '보다 공감적이고, 덜 욕구충족적이며, 내면화된 원리들을 지향하는'(Eisenberg, 1982) 추론으로 변화한다고 가정되었다.

2.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타행동이 의적인 보상 획득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행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타인을 이롭게 하려는 자발적 행동이라는 데에 동의한다(Bar-tal, 1976). 그러나 어떠한 행동이 순수하게 수혜자의 복지를 위해 수행되었는지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므로,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자발적,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용어가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친사회적 행동은 수행자의 동기에 관계없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자발적 행동으로서, 이타행동과 그 밖의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자발적, 긍정적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행동의 수행자에게 어떤 부담, 자아 희생 또는 모험을 요구하는 특성(Eisenberg, 1982)이 있다.

(1) 과제의 부담과 과제의 종류

개인이 높은 수준의 도덕판단을 하더라도 반드시 친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덕판단은 인지적이고 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판단을 하는데에는 여러 요소들,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담과 보상, 그 상황에서의 특수한 정서, 인지적 관계 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Eisenberg, 1982). 부담-보상 분석과정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부담-보상적 관점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인간상호작용에서 가장 이로운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부담을 최소로 하고 보상을 최대로 하려는 원리에 의하여 유도된다고 본다. 여기에서 보상은 물질적 이익 뿐만 아니라 칭찬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만족도 포함된다. 부담은 도와줄 경우 소요되는 물질적인 것과 돕지 않았을 때 초래될 죄책감 손상 등 심리적인 것을 포함한다. 이 중 선행 연구들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주로 연구되어 온 측면은 도와줄 경

우에 수행자가 지게되는 시간, 노력 등의 부담으로서(Bar-Tal, 1976), 이러한 부담의 정도가 크고 작음에 따라 타인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친사회적 행동의 결정에서 부담-보상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이나 감사와 같은 보상의 기대를 가지고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고 한 사회교환이론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서는 곤경에 처한 타인에게 주어지는 도움이 도움에 포함되는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길연, 1981; 정현희, 1990; Piliavin, Piliavin & Rodin, 1975; Weyant, 1978).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손익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므로 과제의 부담이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의 연구에서 과제의 부담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대개 한 두 가지 종류의 유사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여 왔으나 한 두 가지 행동만을 측정하여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보는 것은 연구결과를 과잉일반화하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함께 측정할 경우에도 종류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경원, 1986; 우희정, 1989; Green & Schneider, 1974; Eisenberg et al., 1987). 행동의 종류와 부담이 다양한 여러 상황에서 개인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이 다른 많은 행동들을 포함할 수 있는 나뉘주기나 돕기 등으로 행동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애매한 기준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담이 어떠한 종류인가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실험과제들을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부담이 되는 것은 크게 시

간, 금전, 체력의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즉, 카드를 만들거나(권민균, 1988; 박경원, 1986; Green & Schneider, 1974) 실험자를 도와주는 과제(Eisenberg-Berg, 1979a)는 주로 시간을 부담으로 하고, 돈이나 연 등 물건을 기부하는 것(우희정, 1989; Eisenberg et al., 1987)은 주로 금전 등 물질을 부담으로 하며, 물건을 운반하는 과제(송길연, 1981; 정현희, 1990)는 주로 체력을 부담으로 한다. 따라서 크게 이 세 종류의 부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제를 설정하여 동일아동에게 과제별로 친사회적 행동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에 별 관계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주로 사탕 등을 나누거나 실험자가 떨어뜨린 물건 등을 주워주는 양, 옆방에서 들리는 신음소리,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 등에 의하여 측정하여 왔다. 이러한 과제가 조사 대상 연령의 아동에 적합하며, 친사회적 행동의 적절한 과제인가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과제들은 행동의 수행에 있어 개인적인 부담이나 희생을 제공한다고 보기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있고 아동의 생활에 적합한 생태적 타당성을 지니는지가 의문이다. 그러므로 조사 대상 아동의 연령에 적합하면서 아동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부담하는 판단을 하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과제들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하는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연령과 성별

대체로 여러가지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왔다(Elmer & Rushton, 1976; Green & Schneider, 1974).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에

서 보면 어린 아동은 나이든 아동보다 이타적인 모델을 관찰하고 친사회적 규범을 배우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강화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덜 이타적이라고 한다. 사회 인지 발달론의 관점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아동의 인지적 판단 능력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거나(박경원, 1986),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 속하지만 행동 패턴이 다르거나 상황조건이 다르면 연령에 따른 발달적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서봉연, 1984)은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적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했다. 성차의 존재를 주장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아가 또래친구에 대해 더 관대하게 행동하며(White, 1972), 놀이상황에서 위로적이고 협동적임(Skarin & Moely, 1974)을 밝혔다. 이러한 여아의 높은 친사회성에 대해 Bardwick과 Douvan(1971)은 일상생활에서 경쟁적이고 자기주장적이고 비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 남아와 비경쟁적, 복종적, 감정적 행동에 대해 주로 강화를 받는 여아와의 차별적 사회화 환경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박경원, 1986; 정현희, 1990; Stanhope, Bell & Parker-Cohen, 1987). 이에 대해 Zarabatany 등(1985)은 몇몇 연구에서 성차가 나타난 이유는 척도의 성격이 여아에게 더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측정방법의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즉 사회가 규정하는 남성성에 해당되는 친사회적 행동일 때에는 남성에게서, 여

성성에 해당하는 친사회적 행동일 때는 여성에게서 친사회적 행동이 더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친사회적 행동이 성역할과 무관한 행동일 수 만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사한 성격의 한 두 가지 과제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별하여 성차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도덕 판단 수준과 친사회적 행동이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을 지지해 주는 연구결과(Blasi, 1980; Eisenberg & Shell, 1986; Malinowski & Smith, 1985)가 보고되었으나,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적 관계는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Eisenberg & Mussen, 1989; Romer, Gruder, & Lizzardo, 1986).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성을 보고한 경우에도 그 관계는 일관성이 높지 않다(Eisenberg-Berg, 1979a; Eisenberg et al., 1987). 이러한 결과들은 추론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람들은 높은 수준으로 추론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 아동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요인인 수행자의 부담, 자아희생, 모험 등의 변수들은 추론과 행동의 관계에 대해 커다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나, 이제까지 선행 연구에서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Eisenberg와 Shell(1986)에 의하면, 어떤 친사회적 행동, 특히 부담이 낮은 행동의 경우 도덕적 갈등과 도덕추론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부담이 높은 행위로 기부와, 부담이 낮은 행위로 도와주기를 비교한 Eisenberg등(1987)

의 연구에서는 기부는 친사회적 도덕판단과 관계되는 반면 도와주기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종류의 행동 과제에서 얻어진 결과로서 어느 행동이 더 높은 부담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부담의 차이에 따른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동일 과제 내에서 부담의 높고 낮음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동일 행동 내에서 부담의 높고 낮음을 고려한 정현희(1990)의 연구에서는 두 조건 모두에서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단 한 종류의 돕기 행동 과제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측정하였을 뿐이다. 과제가 어떠한 특징적 부담을 가지는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친사회적 도덕추론에서는 Eisenberg-Berg와 Neal(1981)이 딜레마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 아동이 부담이 높은 과제에서 더 욕구충족적이고 덜 필요지향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친사회적 도덕추론도 과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친사회적 추론과 행동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3학년, 6학년 남녀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들은 대체로 주거 환경이 중류층에 속하는 세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마다 2-3학급씩 유의 표집하였다. 먼저 조사 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도, 실시 절차의 적절성,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3학년과 6학년 각각 한 학급씩을 대상으

로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1994년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만 9세에서 12세까지의 3학년 남아 75명, 3학년 여아 75명, 6학년 남아 75명, 6학년 여아 75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친사회적 도덕추론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측정도구로는 Eisenberg-Berg(1979b)가 개발한 친사회적 도덕 갈등 상황(prosocial moral dilemmas)을 과제의 종류와 부담조건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래 친사회적 도덕 갈등 상황은 한국 상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한국 아동이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과 또래인 주인공의 입장에 자신의 입장을 투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로 수정하였다. 아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다리를 다친 어린 아이를 도와 주어야 하는 갈등 상황과, 같은 반 아이에게 어머니의 입원비를 주는 일과 자전거를 사고 싶은 것 사이의 갈등 상황, 피곤한 몸으로 다친 노인의 손수레를 끌어 주어야 하는 갈등 상황이 설정되었다.

아울러 주인공이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어떠한 것을 주로 희생해야 하는가에 따라 이들 세 종류의 과제 내에서 과제가 주는 부담을 나누었다. 즉 다친 어린 아이를 도와서 데려다 주는 일은 시간이 주로 소요되는 과제이므로 '시간 부담 과제'로 설정하고, 근처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낮은 부담으로, 멀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높은 부담으로 하였다. 자전거를 사려고 모은 돈을 같은 반 아이에게 어머니의 입원비로 주는 일은 금전적 손실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금전 부

담 과제'로 설정하고, 돈의 절반을 주는 것은 낮은 부담으로 돈의 전부를 주는 것은 높은 부담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다친 노인의 손수레를 끌어주는 일은 요구되는 회생이 주로 신체적 힘이기 때문에 '체력 부담 과제'로 설정하고, 노인과 함께 손수레를 끄는 것은 낮은 부담으로 혼자서 손수레를 끄는 것은 높은 부담으로 하였다. 거의 모든 친사회적 행동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과 힘을 필요로 하지만 보다 특징적인 회생과 부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과제의 주요 부담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전체 과제는 총 6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성차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제의 주인공은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일치하였다. 설정된 이야기들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아동학 전공자 4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사 받았으며, 국민학교 교사 1명과 국민학 전공자 1명에게 보여 문장과 내용을 검토받았다. 과제가 아동이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무리가 없어 타당한 과제로 판단되어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응답에 대한 분석은 Eisenberg-Berg (1979b)의 분류기준과 채점기준에 따랐다. 아동들의 응답은 10유형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5수준으로 나누어 0점에서 4점을 주었고 추론 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의 점수가 부여되었다. 각 점수는 합산되어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가 된다.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및 본 대학원 아동학 석사과정 전공자 2명이 응답을 분류하였으며, 평정자간 신뢰도는 추론 유형이 .88, 추론 강도가 .91이었다.

(2)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과제도 시간, 금전, 체력을 주요 부담으로 하는 세 종류의 과제를 설정하였고 각 과제 내에서 부담의 많고 적음에 따른 차이를 두

었다. 시간 부담 과제로는 박경원(1986), 권민균(1988) 등이 사용한 과제를 수정하여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이 봉투를 만드는 일을 도와 주는 과제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봉투를 만들어 교문 앞에 있는 차까지 가져다 주는 것은 낮은 부담으로 하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양로원까지 가져다 주는 것은 높은 부담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아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한 봉투의 수이다.

금전 부담 과제는 장애인들이 만든 카드를 사주는 것으로 설정하였고, 낮은 부담에서는 카드의 가격을 100원으로 하고 높은 부담에서는 카드의 가격을 500원으로 하였다. 이 조사에서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아동이 사겠다고 한 카드의 수이다.

체력 부담 과제에서는 송길연(1981), 정현희(1990)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불우아동에게 보낼 책을 운반하는 과제를 수정하여, 낮은 부담에서는 약 200페이지 분량의 책 5권을 묶은 것(약 2kg)을 한 묶음으로 하였고 높은 부담에서는 책 10권을 묶은 것(약 4kg)을 한 묶음으로 하였다. 여기서 친사회적 행동 점수는 아동이 운반하겠다고 한 책 묶음의 수이다. 각 과제에서 아동이 도와줄 수 있는 봉투, 카드, 책묶음의 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아동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과제는 국민학교 교사와 아동학 전공자 3인과의 토의를 거쳤고,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에게 현실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총피험자의 절반에게는 부담이 낮은 행동을 먼저 제시하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부담이 높은 행동을 먼저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대학생 봉사반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나서 친사회적 행동 과제가 쓰인 종이를 배부하였다. 내용을 하나씩 읽어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봉투, 카드, 책 묶음의 수를 기록하게 한 다음 제출하게 하였다. 이때 낮은 부담이나 높은 부담의 과제 중 하나만을 조사하였다. 일차 조사가 끝난 후 이를 후에 다시 학교를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높은 부담이나 낮은 부담의 과제 중 남은 것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아동이 응답한 대로 행동 과제를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다른 사람에 신경쓰지 말고 자기가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만큼만 응답할 것을 당부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친사회적 도덕추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아동들에게 조사의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행동 조사와 추론 조사에 약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점수의 전반적 분포와 집단간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과제의 부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쌍체 t-검증(paired t-test)을 하였으며,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시간 부담 과제의 낮은 부담(M=11.64, SD=9.88)과 높은 부담(M=7.06, SD=8.31), 금전 부담 과제의 낮은 부담(M=6.76, SD=4.97)과 높은 부담(M=1.83, SD=1.68), 체력 부담 과제의 낮은 부담(M=12.73, SD=10.31)과 높은 부담(M=6.79, SD=6.07)을 볼 때, 낮은 부담 과제의 평균 점수가 높은 부담 과제의 평균 점수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체력 부담 과제의 낮은 부담일 경우이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금전 부담 과제의 높은 부담일 경우였다. 아동은 체력을 이용해 돕는 것에 가장 부담을 덜 느끼며 금전을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과제의 부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과제의 부담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 과제들에 대해 쌍체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담이 낮은 과제(M=31.12, SD=17.65)와 부담이 높은 과제(M=15.69, SD=11.31) 간에 행동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96, p<.001$). 즉 부담이 낮은 과제의 행동 점수가 부담이 높은 과제의 행동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친사회적 행동의 전체 점수에 대하여 검증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과제의 부담별, 과제의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 검증하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에 대해 이원변량분

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의 주효과($F=5.32, df=1,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성별의 주효과와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6학년 아동의 행동 점수가 3학년 아동의 행동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1) 과제의 부담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부담의 높고 낮음에 따라 과제를 나누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과제의 부담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과제의 부담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낮은 부담	연령	1228.16	1	1228.16	3.99*
	성별	177.87	1	177.87	0.58
	연령×성별	541.36	1	541.36	1.76
	오차	91181.04	296	308.04	
	전체	93128.44	299	311.47	
높은 부담	연령	768.00	1	768.00	6.18*
	성별	46.41	1	46.41	0.37
	연령×성별	669.01	1	669.01	5.39*
	오차	36761.12	296	124.19	
	전체	38244.55	299	127.91	

* $p<.05$

낮은 부담 과제와 높은 부담 과제 모두에서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성별의 주효과는 없었다. 두 과제 모두에서 6학년 아동의 행동 점수가 3학년 아동의 행동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낮은 부담 과제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던 반면, 높은 부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3학년은 남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은 반면, 6학년은 여아의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았다.

(2) 과제의 종류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세 종류의 과제로 나누어 이원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시간 부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3학년보다는 6학년이, 남아보다는 여아가 더 높았다. 또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아는 3학년일 때 행동 점수가 높았으나 여아는 6학년일 때 행동 점수가 높았다. 금전 부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주효과는 없었고,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이 과제의 평균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낮아서, 아동이 금전을 부담으로 하는 이 과제에서 연령과 성별의 차이없이 다른 과제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력 부담 과제에서는 성별의 주효과만이 의미있게 나타났고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표 2〉 과제의 종류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점수

과제의 종류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시간 부담 과제	연령	1786.08	1	1786.08	6.48*
	성별	6003.21	1	6003.21	21.79***
	연령×성별	1925.33	1	1925.33	6.98**
	오차	81554.37	296	275.52	
	전체	91269.00	299	305.25	
금전 부담 과제	연령	17.76	1	17.76	0.50
	성별	104.43	1	104.43	2.94
	연령×성별	82.16	1	82.16	2.31
	오차	10520.21	296	35.54	
	전체	10724.57	299	35.87	
체력 부담 과제	연령	265.08	1	265.08	1.22
	성별	8878.08	1	8878.08	40.99***
	연령×성별	14.52	1	14.52	0.07
	오차	64105.20	296	216.57	
	전체	73262.88	299	245.03	

*p<.05 **p<.01 ***p<.001

3.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0.497$)가 있었다. 즉, 친사회적 도덕추론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낮은 부담 과제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r=0.472$, $p<.001$), 높은 부담 과제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r=0.348$, $p<.001$), 낮은 부담일 때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높은 부담일 때의 친사회적 행동($r=0.393$, $p<.001$), 높은 부담일 때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낮은 부담일 때의 친사회적 행동($r=0.437$, $p<.001$) 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과제의 부담이 다를 경우에도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고, 추론 과제의 부담에 상관없이 부담이 낮은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과제의 종류별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시간 부담 과제에서의 관계($r=0.148$, $p<.01$), 금전 부담 과제에서의 관계($r=0.263$, $p<.001$), 체력 부담 과제에서의 관계($r=0.262$, $p<.0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모든 종류의 과제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높지는 않으나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하여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법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부담과 과제의 종류라는 상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친사회적 행동에서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 친사회적 도덕추론과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초등학교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6개의 과제를 통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과제의 부담이 다를 경우에 낮은 부담의 과제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과제의 부담이 높을 경우 아동이 도와주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부담을 더 느끼고 이러한 부담의 지각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부담을 최소로 하고 보상을 최대로 하는 원리로 설명하려고 한 부담-보상적 설명과 일치한다. 또한 과제의 부담이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임을 시사한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은 연령에 따라 다르나 성별에 따른 차이 및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다. 3학년보다는 6학년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타인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능력과 도덕 판단이 성숙할 뿐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을 관찰하고 친사회적 행동의 규범을 배우며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강화를 받을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인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한 두 가지의 과제로 측정하여 성차를 논하기보다는 여러가지 과제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각 과제별로 성차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은 과제의 부담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난다. 부담이 낮은 경우 연령 효과가 있어 6학년 아동의 추론 수준이 더 높다.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6학년 아동의 추론 수준이 더 높은 연령의 주효과와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난다. 즉 3학년은 남아가, 6학년은 여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데, 이는 3학년 남아와 6학년 여아가 부담이 높은 과제에서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지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제의 종류에 따라서도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시간 부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6학년 아동이 3학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은 아동이 연령 증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증대됨으로써 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것으로 지각하여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아가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것은 과제의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남아가 이 과제를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부담을 더 높게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만들기라는 과제 행동의 특성이 여아에게 더 선호되어 여아가 더 높은 행동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성이 다른 여러 과제들을 사용한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남아는 3학년일 때, 여아는 6학년일 때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역시 3학년 남아와 6학년 여아의 부담 지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금전 부담 과제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행동의 차이가 없다. 또한 다른 과제들에 비해 행동이 낮게 나타난다. 이를 볼 때 아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없이, 시간이나 체력에 대한 부담보다는 금전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과정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들이 연령에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자원인 금전의 지출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인 시간과 체력의 소모에 비해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체력 부담 과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행동의 차이만 나타난다. 남아가 여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 것은 이 과제에 소요되는 체력의 부담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아가 신체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여아보다 높게 하는 경향이 있어, 객관적으로 동일한 신체적 힘이 소요되는 일이라도 자신의 신체적 역량을 더 높게 지각하는 남아가 행동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여 과제를 보다 수월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신체적 활동을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해온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때문에 체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남아가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관계가 있다. 즉, 친사회적 도덕추론 수준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 과제의 부담이 다를 경우에도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은 관계를 보인다. 부담이 낮은 과제의 추론과 부담이 높은 과제의 추론 모두 부담이 높은 과제의 행동보다는 부담이 낮은 과제의 행동과 더 관련성이 높다. 이는 부담이 낮은 친사회적 행동은 의식적인 인지 과정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성숙과 무관할 수 있다고 한 것(Eisenberg et al., 1987)과는 다른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부담이 낮은 행동 과제는 어느 정도의 인지적, 도덕적 고려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부담이 높은 과제의 추론이 부담이 낮은 과제의 행동과 더 높은 관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추론과 행동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아동은 쉽게 상황적 요인의 지배를 받고 자기만족 욕구에 의해 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친사회적 행동은 그 수행에 있어 부담이 클 때 아예 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 부담을 많이 요구하는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덜 성숙한 판단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괴리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행동의 관계를 과제의 종류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 세 종류의 과제 모두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은 관련된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을 포함한 도덕적 행동의 성숙은 도덕적 이슈들에 관한 사고의 질의 영향을 받는다는 인지발달적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친사회적 행동의 관련변수로서 친사회적 도덕추론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또한 과제의 부담과 종류를 고려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에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친사회적 도덕추론에서 과제의 부담별, 종류별로 추론 양상이 다르지만, 친사회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차이만큼 다양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추론과 달리 아동이 수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각 과제의 부담 등 특성은 아동의 책임감 수용에 영향을 주므로 더 중요하고 민감한 단서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주로 연령에 따라 발달 양상을 보인다는 것과, 이것이 과제의 부담과 종류라는 상황적 요인과 아동의 특성인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과제의 부담과 종류가 달라지더라도 관계가 있음

을 밝혔다. 이러한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친사회적 발달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민균(1988). 슬픔과 기쁨, 그 정서의 소재 유형이 중학생의 이타행동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경원(1986). 아동의 이타행동의 발달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봉연(1984). 친사회적 행동의 규정요인에 관한 고찰. 심리학의 연구문제, 1, 155-176.
- 송길연(1981). 아동의 조력행동에 미치는 공감변인과 투자변인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1989).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TV 및 언어적 훈련의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Bardwick, J. M., & Douvan E.(1971). Ambivalence:The socialization of woman. In V. Gormick & B. K. Moran(Eds.), *Woman in sexist society*. New York: Basic Co.
- Bar-Tal, D.(1976). *Prosocial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 Sons.
- Blasi, A.(1980). Bridging moral cognition and moral action: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8, 1-45.
- Eisenberg, N.(1982).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 Eisenberg, N., Lennon, R., Beller, R., & Mathy, M.(1987). Prosocial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712-718.
- Eisenberg, N., Mussen. P.(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N., & Shell, R.(1986). Prosocial moral judgement and behavior in children: The mediating role of co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2, 426-433.
- Eisenberg-Berg, N.(1979a).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5, 128-137.
- Eisenberg-Berg, N.(1979b). Relationship of prosocial moral reasoning to altruism, political liberalism, and intellig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5, 87-89.
- Eisenberg-Berg, N. & Hand, M.(1979). The relationship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 Eisenberg-Berg, N. & Neal, C.(1981). Effects of identity of the story character and cost of helping in children's moral judg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17-23.
- Elmer, N. P., & Rushton, J. P.(1976). Cog-

- nitive-developmental factors in children's generos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 277-281.
- Green, F. P., & Schneider, F. W.(1974). Age difference in the behavior of boys in three measures of altruism. *Child Development*, 45, 248-251.
- Malinowsky, C. I., & Smith, C. P.(1985). Moral reasoning and moral condu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16- 1027.
- Mussen, P. H., & Eisenberg, N.(1977). *Caring, sharing, and helping: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San Francisco: Freeman.
- Piliavin, L. M. , Piliavin, J. A., & Rodin, J. (1975). Costs, diffusion and the stigmatized victi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429-438.
- Romer, D., Gruder, C. L., & Lizzardo, T. (1986). A person-situation approach to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001-1012.
- Skarin, K., & Moely, B.(1976). Altruistic behavior: An analysis of age and sex difference. *Child Development*, 47, 1159-1165.
-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47-353.
- Weyant, J. M.(1978). Effects of mood states, costs, and benefits on hel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169- 1176.
- White, G. M.(1972).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and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 Wispe, L. G.(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19.
- Zarabaty, L., Hartmann, D. P., Gelfand, D. M., & Vinciguerra, R.(1985). Gender difference in altruistic reputation: Are they artifactual?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7-101.